

내러티브 저널

2026년 4월 22일

오늘은 2학년 성악 실기평가를 참관하였다. 학생들은 약 1분에서 1분 30초 정도의 뮤지컬 곡을 선택하여 무대 위에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 시간을 가졌다. 짧은 시간이지만 각자의 해석과 준비가 담겨 있어 무대마다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특히 인상 깊었던 학생은 단 1분의 시간 안에서도 자신만의 스테이지를 만들어내며 관객을 끌어당기는 힘을 보여주었다. 반면 어떤 학생들은 긴장과 떨림 때문에 시선이 흔들리거나 주변을 의식하는 모습도 보였다. 같은 공간, 같은 조건 속에서도 학생마다 무대 위에서의 모습이 크게 달라 흥미로웠다.

하지만 그 모든 모습이 결국은 성장 과정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긴장하고 실수하는 순간조차도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경험이 될 것이라 느껴졌다. 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 조금씩 자신만의 무대를 완성해 나가기를 바라게 되는 시간이었다.